

아동의 인지적 도덕성 발달을 위한 인위적 노력의 재고

김 상 윤*

I. 서론

도덕성을 여러 관점에서 규명할 수 있으나 Peters(1981)는 사회관습의 내면화로 보는 측면과 비판적 판단력으로 보는 측면으로 대비시킨 바 있다. Frankena(1963)는 전자를 동양적, 후자를 서양적 윤리라 불렀다. 민주주의 교육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최근까지 도덕교육에 후자의 도덕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특히 1982년에 이루어진 교과서 개편이후 Kohlberg의 도덕판단 단계이론이 크게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는 주로 인지적 능력을 강조한 것으로 사회관습의 내면화라든가 이타성 등의 인지외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간과될 수 있음이 지적될 수 있다. 인지적 능력이전에 존재하는 직관력(Shweder, 1982; 김상윤, 1986), 본질적 도덕성과 임의적 관습에 대한 개념인식의 독립적 발달(Smetana, 1981; Song 등, 1987), 이타적 도덕성의 초기형성(May, 1979; Hoffman, 1975), 모방(Bandura, 1977)과 동일시(Freud, 1921)등이 그것이다. 이들 주장들은 도덕성이란 비판적 능력이라기 보다 태어나면서 부터 사회적 관습과 문화를 일단 비판없이 받아들이는 것과 남의 고통을 공감하는 등의 이타적 성향을 도덕성의 주요 특징으로 본다.

인지적 도덕발달이론가 특히 이를 도덕교육에 적용하려 했던 학자들(Turiel, 1966; Blatt, 1971)이 주장했듯이 도덕판단의 단계를 보다 빨리 상향이행하는 것만이 도덕교육의 전부가 아니다. 만약 그러한 상향이행에로의 촉진이 강조될 경우 바람직한 비인지적 특성들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위험이 있다. 그 뿐 아니라 도덕판단의 수준을 구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것이 인지구조를 재구조화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태도만 기른다거나 어려운 말을 논리적으로 무성하게 전개시켜나가는 것이 되기 쉽다. 특히 그 대상이 아동일 경우, 그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갈등장면을 원만히 해결하는데 유리한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모든 도덕문제가 갈등장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아직 갈등의 장면이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아동에게 성인의

* 전임강사, 아동교육 전공

도덕성을 갖기 바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다. 그것은 천재아가 학문의 세계에서는 또래 집단보다 뛰어날수록 좋은 일일지 몰라도 적어도 인간의 세계에서는 또래 집단보다 뛰어날수록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이다. 도덕성이란 도덕적 갈등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라기 보다는 본질적으로 인간사회 속에서 겪게 되는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덕관습의 부조건적 내면화, 인내심, 관용성 등의 요인이 관련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아동의 독특한 입장을 고려해 볼 때 동일한 도덕장면에 대한 지각이나 해석에 있어 성인이 당면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도덕판단의 질이 어른의 것에 비해 열등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적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지적 도덕발달이론의 주장자인 Piaget(1932)나 Kohlberg(1958)가 처음에 의도했던 것이 도덕발달의 촉진이 아니었던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도덕판단 발달에 있어서 낮은 단계를 높은 단계에 비해 열등하다고 본 점에서는 두 사람이 일치하고 있다. 이 생각은 복잡성에 기초한 단계의 계열성을 가치의 계열성으로 해석하여 아동이 가급적 빨리 성인의 도덕성을 갖게 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Blatt등(1975)의 인지적 도덕성의 발달촉진을 위한 토론방식의 프로그램이 개발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송명자(1979), 김현성(1985)등에서 그 효과가 인정된 바 있다. 그러나 Blatt의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다시피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이 참여후 모두 단계가 향상된 것은 아니었으며 몇몇 아동은 오히려 퇴행한 경우도 있었음에 유의할 만하다. 이러한 까닭은 프로그램 내용의 적절성, 도덕단계 측정도구의 신뢰성 외에 과연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높은 단계의 도덕성이 그 아동들에게 적절한 것이며 가치로운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자연적 성숙의 결과와 비교하면서 한편으로는 연령집단간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각 연령시기에 있어 도덕판단단계와 지능, 학력, 행동 등의 변인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국민학교 2학년에서 6학년에 이르는 집단에서 인지적 도덕성 발달을 촉진하는 노력의 효과는 자연적 성숙의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다.

가설 2: 국민학교 4학년에서 6학년에 이르는 동안 양 연령 시기간의 비교에서 4학년(10세)때는 6학년(12세)때에 비하여 지능, 학력(학업성적), 행동이 건전한 아동일수록 낮은 단계에 관련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A. 도덕성의 단계별 특성

Kohlberg(1981)는 도덕성의 발달에서 3개의 수준과 이에 따른 각각 두개 모두 6개의 단계들을 설정하였다. 인습이전 수준 I이라 불리우는 수준에는 벌과 복종에 의한 도덕성인 단계1과 도구적 사고로서의 도덕성인 단계2가 포함된다. 수준 II는 인습수준으로서 대인관계의 조화를 위한 도덕성인 단계3과 법과 질서준수로서의 도덕성인 단계4가 포함된다. 수준 III은 인습이후수준으로 사회계약정신으로서의 단계5와 보편적 도덕원리에 대한 확신으로서의 도덕성인 단계6으로 구성된다.

각 단계의 특성을 담고 있는 객관식 척도상의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이 예는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 비싼 약을 훔치게 된 톰씨의 이야기에서 가져온 것이다.

단계1: 톰씨는 도둑질을 했으니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

단계2: 톰씨가 약을 훔치지 않으면 아내는 죽을 것이다.

단계3: 톰씨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 점을 참작해야 한다.

단계4: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 사회질서를 위한 나라의 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단계P: 이런 경우에는 법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단계P는 단계5와 단계6을 포함한 것임)

B. 갈등장면의 제공과 도덕판단발달의 촉진

Turiel(1973)은 인지적 도덕발달에 다음 4가지 과정이 포함된다고 했다. 즉, 개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사고 양식이 도덕문제 해결에 부적절함을 인식하며—새로운 사고양식을 구성하고—이것이 이전의 사고양식과 갈등하며—결과적으로 이전 것이 새로운 것에 종속적으로 통합되어 다음단계로의 발달이 일어난다고 했다. Clinchy(1977)는 진보적인 학교가 전통적인 학교에 비해 더 많은 도덕적 사고를 위한 인지갈등의 기회를 제공하며 복종보다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여 더 높은 도덕성 발달에 기여한다고 했다.

송명자(1978)는 갈등장면의 경험은 집단토론, 역할수용(role taking), 높은 수준의 도덕사고 제시(presentation of moral reasoning)의 세가지 방법을 들었다. 이 중에서 역할수용과 높은 수준의 도덕사고 제시의 기회를 포함할 수 있는 소집단 또는 학급토론의 활용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Blatt등(1975), Selman 등(1975), Rybash 등(1975)에 의해 이루어 졌다.

갈등이 단계의 상향적 이행을 촉진하는데 대한 설명은 비대치 모형(nondisplacement model)과 대치모형(displacement model)에서 다르게 한다. 다음단계는 이전단계를 포함

한다고 보는 비대치모형에서는 새로운 환경구조와 자신의 구조간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단계이행이 생긴다고 설명하기 때문에 모방과 내면화의 설명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인다. 이에 비해 다음단계는 이전단계를 버린다고 보는 대치모형에서는 이전단계의 도덕성이 그 자체가 갖는 결함으로 붕괴되기 때문에 단계이행이 생긴다고 본다(Kuhn, 1979).

실험연구(Keasey, 1973 : Walker, 1983)에서는 구조적으로 한 단계 위의 도덕적 사고와 더불어 내용적으로 다른 입장의 도덕적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모두에서 인지적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했다. 김현성(1985)은 논리적 추론능력이 있는 피험자에게 한 단계 높은 도덕사고와 더불어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할 때 도덕발달의 촉진효과가 더 많았음을 확인하였다.

C. 도덕판단단계 점수와 지능, 학업성적, 행동간의 관계

Rest(1979)에 의하면 단계점수와 지능과의 상관계수의 범위가 .20에서 .50에 이른다고 했다. McColgan(1975)은 29명의 비행아 집단에서 지능과 단계점수와의 상관계수가 .20이었으며 학업성적과는 .09 - .25의 범위를 나타낸다고 했다. 김종택(1986)은 수학적성과 단계점수간의 정적상관을 밝혔다. Masanz(1975)는 중학생의 경우 학업성적과 단계점수간에 .47의 상관계수를 확인하였다.

도덕적 행동과 단계점수간의 관계에서 Grindler(1964)는 도덕판단능력과 도덕적 행위와는 상관이 없다고 했으며 Hedinnus(1966), Pettel 등(1966), Nelson(1968) 등의 연구에서도 양자간의 상관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Piaget(1932, 112-120)는 도덕판단은 해당단계의 구체적 실천 즉, 도덕행위의 발전적 의식실현이므로 양자간에 상관이 있다고 했으며, Kohlberg (1972), Krebb 1967), Schwats(1969) 등의 연구에서 국민학생, 대학생 집단에서 도덕판단수준이 높을수록 컨닝과 남을 속이는 경향이 적음을 확인하였다. 20~35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Jacobs(1975, 1977)의 연구에서도 높은 단계점수의 경우 경쟁이나 속임수보다는 협조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고 했다.

Leming(1978)은 낮은 단계점수가 속이는 행위와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했다. Kantner (1975)는 60명의 남자죄수들의 단계점수가 낮았다고 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면 대체로 단계점수가 지능, 학력, 행동에 대한 예언력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Kohlberg(1981)는 도덕판단은 도덕행위에 필요하나 충분한 조건은 아니며 양자간에 사회적 압력, 상황의 모호성, 개인의 동기, 정서, 의지, 목적, 자아강도 등의 요인들이 작용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피험자의 연령의 변인이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작용 그 자체에 영향을 끼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상의 연구대상은 주로 중학생이상의 집단이기 때문에 높은 단계점수가 높은 지능, 학력,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에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낮은 단계의 비율이 많은 10세 이하의 집단에서는 문제가 달라질 것이다. Colby

(1979)에 의하면 10세의 경우 단계2는 전체아동의 반이상을 차지한다고 했다. 이처럼 그 대상이 어린 집단일 경우에도 높은 단계가 도덕행위에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 확인해야 할 주제이기도 하다. Rest(1979)의 척도는 원래 중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린집단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학교 4학년의 아동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번안함으로써 집단의 단계점수를 구할 수 있었다.

III. 연구의 내용

A. 연구의 방법

연구 1

- 1) 대상 : 부산시내 D국민학교 1, 2, 3, 4, 5학년 각 학년별 남녀 각 30명씩 300명.
- 2) 도구 : Rest(1979)의 DIT(Defining Issues Test)와 Kohlberg(1982)의 주관식 척도 및 김상윤(1982)의 객관식 척도 '나의 생각'을 근거로 하여 국민학교 저학년 아동을 위해 제작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채점은 단계1은 0점, 단계2는 1점, 단계3은 2점, 단계4는 3점으로 모두 12문항으로 도합 36점으로 되어있다.
- 3) 절차 : 1986년 10월에 사전검사를 1987년 7월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사전사후 검사간에 다음과 같은 원리에 입각한 교재의 재구성파 실천이 있었다. 첫째, 바른생활 수업모형으로 준비 및 문제파악-관련요소 이해-발견 및 판단하기(저학년) 둘째, 가치이해 수업모형으로 도덕적 상황사태 제시-문제사태와 관련된 규범 찾아보기-규범의 의미와 타당성 찾아보기-도덕적 사고 판단의 연습-실천동기 강화 셋째, 가치갈등 수업모형으로 가치갈등 제시-문제사태 분석-자기입장의 선택-자기입장의 수정 및 대안찾기 등의 수업모형이 적용되었다.(보다 상세한 수업내용은 문교부 보고서(1987)를 참조할 수 있음)

연구 2

- 1) 대상 : 부산시내 N국민학교 4학년 1개학반 남14명 여13명 모두 27명.
- 2) 도구 : Rest의 DIT에 근거하여 연구자(1982)가 제작한 '나의 생각'을 사용하였다. (채점방법은 김상윤(1989)의 논문에서 참조할 수 있음) 관련변인인 지능은 3학년 때 실시한 일반지능검사를 사용하였으며 학력은 생활기록부에 나타난 6년간의 각과목 5단계 평점을 평균하여 이를 기초로 만든 등위점수를 사용하였으며 행동은 역시 행동발달란에 기록된 3단계 평점을 평균하여 등위점수로 환산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 3) 절차 : 1982년 10월에 연구대상들을 방과후에 교실에 남겨하여 연구자가 직접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년 뒤 1984년 10월 6학년이 된 이들에게 다시 동일 검사를 실시하였다.

B. 연구의 결과

연구 1

도덕판단발달의 촉진을 위한 9개월간의 갈등적 수업에 참여한 2개학반의 아동중 남녀 각 30명 각 학년별 60명씩 도합 300명의 사전사후 도덕판단 단계 점수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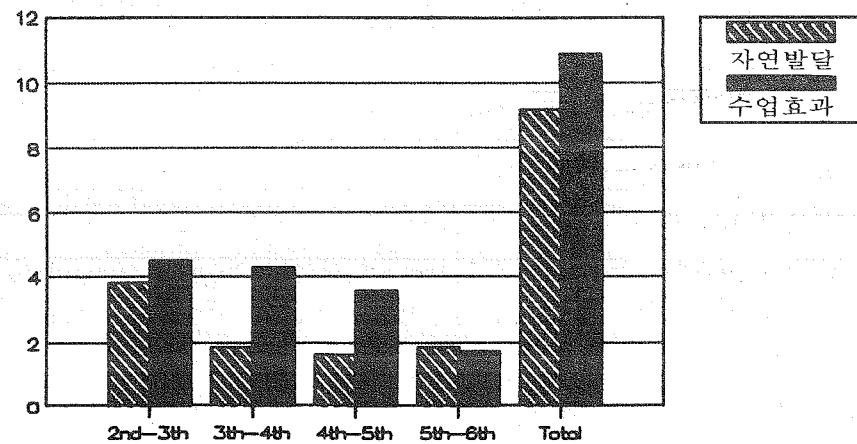
<표 1> 각 학년집단별 갈등적 수업 참여 효과

	2학년(8세)	3학년(9세)	4학년(10세)	5학년(11세)	6학년(12세)
사전검사 M(SD)	17.30(3.21)	21.13(3.78)	23.00(3.31)	24.60(3.55)	26.47(2.26)
사후검사 M(SD)	21.83(4.54)	25.43(2.67)	26.57(2.32)	26.33(2.56)	28.20(1.99)
차이검증 t	+4.772*	+5.497*	+4.775*	+1.930*	+3.512*

* p < .05

1. 사전검사는 1986년 10월, 사후검사는 1987년 7월에 실시한 것임.
2. 본 연구결과는 D국민학교의 자료를 재분석한 것이므로 문교부에 보고된 결과(1987)와 다를 수 있음.

<표 1>을 근거로 하여 구한 증가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증가치 8점은 1단계 변화에 해당함.
2. 자연발달은 1년간 횡단자료이며 수업효과는 9개월간 종단자료임.

<그림 1> 각 학년별 집단별 갈등적 수업참여 효과

1학년에서 2학년에 이르는 동안 평균단계는 단계2에서 단계3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에는 자연적으로 성숙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실험군의 도덕판단발달의 단계 점수증가는 순전히 수업효과로만 보기는 곤란하다. 이는 2학년의 사후검사점수(21.38)와 3학년의 사전점수(21.13)를 비교($t=.910, n.s.$)해 보면 알 수 있다.

수업효과가 자연적 성숙효과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은 3, 4학년 집단으로서 이들 집단의 수업후 수준은 6학년의 사전검사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그리고 5학년에서 6학년에 이르는 동안 평균단계는 초기 3단계를 벗어나고 있으나 자연적으로 성숙하는 정도와 큰 차이는 없다. 그것은 5학년의 사후검사점수(26.33)와 6학년의 사전검사점수(26.47)를 비교($t=-.315, n.s.$)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특히 <그림1>에 나타난 자연발달 및 수업효과의 증가치 비교에서도 3~4학년간 및 4~5학년간의 시기에 한하여 수업효과가 자연발달을 능가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학년간의 비교에서도 그 차이는 3~4학년간에 나타난 자연발달 및 수업효과 간의 차이를 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들은 도덕판단 발달은 수업의 효과에 영향을 받으나 성숙의 효과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도덕판단발달을 위해 특별히 제공되는 교실내의 인위적 수업외에 다른과목의 수업내용 그리고 교실밖에서 경험하는 생활경험 예컨대 또래 집단과의 사회적 관계나 가정생활, 각종 매스컴 등의 장면에서 자연적으로 발달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 2

국민학교 4학년에서 6학년에 이르는 동안 자연적으로 발달되는 도덕판단 단계점수와 아동의 지능, 학업성적, 그리고 행동발달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표 2> 4학년(10세) 시기의 도덕판단 단계점수에 관련되는 제요인 분석

단계	지 능	학 력	행 동
단계2	.270 (.480*)	- (.171)	- (-)
단계3	.153 (-)	.238 (-)	.248 (-.171)
단계4	-.251 (-)	- (-)	- (-)
단계P	- (-)	- (-)	- (-)

* p < .05

1. ()속은 원점수를 '-'는 절대값 .150미만을 가리킴.
2. '나의 생각'은 각 단계에 해당하는 문항에 피험자가 매긴 점수의 평균인 원점수와 그중에서 다시 각 이야기 중에서 4개씩 중요한 차례대로 선발한 다음 그 등의점수에 근거하여 환산한 상대점수로 구분된다.

〈표 3〉 6학년(12세)시기의 도덕판단 단계점수에 관련되는 제요인 분석

단계	지 능	학 력	행 동
단계2	-.286 (.261)	-.478*(.244)	-.504*(-)
단계3	-.212 (-)	-.192 (-)	- (-)
단계4	.252 (-)	.593**(-)	.530*(-)
단계P	.398 (.475*)	.314 (.400)	.311 (.424)

* p< .05, **p< .01

()속은 원점수를 '-'는 절대값 .150미만을 가리킴.

〈표 4〉 4~6학년 간의 도덕판단 단계점수의 증가치에 관련되는 제요인분석

증가치	지 능	학 력	행 동
단계2	-.491*(-.273)	-.320 (-)	-.263 (-)
단계3	-.313 (-)	-.382 (.432)	.331 (.462*)
단계4	.408 (-)	.529*(.246)	.409 (.284)
단계P	- (.156)	.154 (.380)	- (.396)

* p< .05

()속은 원점수를 '-'는 절대값 .150미만을 가리킴.

4학년때는 지능이 높은 아동이 단계2의 원점수에 관련되어 있음에 비해 6학년때는 지능, 학력, 행동에서 모두 낮은 아동이 단계2의 상대점수에 관련되어 있으며 행동, 학력이 모두 높은 아동일수록 단계4의 상대점수에 관련되어 있다. 4학년에서 6학년까지 2년간에 걸쳐 지능이 높은 아동은 단계2의 상대점수의 감소를 보였으며 학력이 높은 아동은 단계3의 원점수 및 단계4의 상대점수의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4학년때에는 단계2가 그 연령의 시기에 있어서 건강한 도덕성임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에 비해 6학년이 되면 단계3이나 단계4가 건강한 도덕성이 됨을 의미한다. 2년간의 종단적 자료분석에서도 단계2가 감소되고 단계3, 4가 증가하는 것이 지능, 학력 그리고 행동발달에서 우수한 아동들에서 정상적임을 가리킨다. 이는 4학년때에 단계3, 4의 점수가 적다고 해서 그 아동의 도덕성을 열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 나이 때 단계3, 4를 보이는 아동이 있어도 그들의 지능, 학력, 행동발달상황과 관련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IV. 결 론

Dewey의 이론을 아동중심교육 방법에만 관련지음으로써 진보주의 교육의 폐단이 생

겨났듯이 Kohlberg의 이론을 도덕발달촉진에 관련지음으로써 인위적 도덕교육의 폐단이 생겨나게 되었다. Kohlberg의 초기입장은 단계의 가속화에 있지 않았다. 그는 도덕교육의 목적이 도덕판단발달의 가속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하게 하는데 있다고 했다(Kohlberg, 1981, 134). 물론 이 말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하게 한다.'는 의미에는 의도성이 있지만 단계의 가속화에 있기 보다는 단계지체를 피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Piaget가 말한 수평적 격차(horizontal decalage) 예컨대 아동의 보존개념이 양에서 먼저 생기고 그 다음 무게와 부피의 개념에 확장되듯이 아동의 도덕판단 발달은 궁극적으로는 자아발달(ego development) 즉, 성격, 행동의 발달에 이르기까지 연장된다. 이들간의 수평적 격차를 배우게 하여 전체적으로 온전한 도덕 인격을 도모하는 것이 도덕교육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에선 단계의 가속화 보다는 오히려 각 단계의 '건강한' 통과에 교육의 초점을 두는 성숙론자들의 입장과 통하는 점이 있다. 따라서 일선학교의 도덕교육은 학급아동들의 전체적 도덕판단 단계점수의 증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각 연령시기에 적절한 도덕성의 확립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연구1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도덕판단단계의 발달은 주로 자연적 성숙에 힘입는 바가 크다. 다만 학교교육은 자신의 연령에 비해 특히 도덕판단의 수준이 낮은 아동들의 도덕성을 또래 아동의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에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개인내의 여러 도덕적 특성간의 격차라기 보다 개인간의 격차라는 점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연구1과 2의 결과를 통하여 도덕판단 발달의 '건강한 통과'를 위하여 학교교육의 새로운 방향정립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김상윤, DIT에 의한 도덕발달수준 I 과 II 간의 결정적 이행기분석,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1982.

김상윤, 도덕내용의 심각성에 대한 아동의 직관적 변별력, 교육학연구, 1986, 24, 1, 63-74.

김상윤, 인지적 도덕발달이론에서 단계별 특성에 따른 도덕성발달 경향분석,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1989.

김윤하, 도덕성발달의 과정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 대학 논문집, 제3집, 1985, 561-597.

김현성, 논리적 추론단계에 따른 인지적 갈등조건이 도덕단계 이행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1985.

송명자, 인지발달이론의 관점에서 도덕성발달단계간의 변천에 관한 개관, 동아대학교, 학생연구, 제9집, 1978, 65-81.

송명자, 자발적인 소집단토론이 아동의 도덕성발달에 미치는 효과, 석당논총, 1979, 4, 9-42.

부산대연국민학교, 가치탐구학습을 통한 도덕적 판단력 신장, 문교부 지정 도덕과 연구학교 보고서, 1987.

Balitt, M., & Kohlberg, L. The effects of classroom discussion upon children's level of moral judgment. Journal of Moral Education, 1975, 4, 129-161.

Colby, A., Kohlberg, L., & Gibbs, J. The measurement and longitudinal study of moral judgment. Harvard University, 1979.

Kohlberg, L. The development of modes thinking and choices in year 10 to 16,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co, 1958.

Kohlberg, L.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San Francisco : Harper & Row, 1981.

Kuhn, D. The application of Piaget's theory of cognitive development to education. Harvard Educational Review, 1979, 49, 340-360.

Piaget, J.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N.Y. : Free Press, 1965(1932).

Shweder, R. A. Beyond self-constructed knowledge. Marrill Palmer Quarterly, 1982, 28, 1, 41-69.

Song, M. J., Smetana, J., & Kim, S. Y. Korean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conventional transgress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1987, 23, 557-582.

Turiel, E. An experimental test of the sequentiality of developmental stages in the child's moral judg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6, 3, 6, 611-618.

Walker, L. J., Sources of cognitive conflict for stage transition in mor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1983, 19, 103-110.

부록 1. 나의 생각(국민학생용)

()학교 ()학년 ()반 ()번 이름()

사람마다 생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읽고 나의 생각을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가) 풀장이야기

영주는 나와 같은 학년의 아이입니다. 방학 때 동네 친구들과 풀장에 가고 싶어 아버지께 여쭙었더니 필요한 돈을 영주 힘으로 모은다면 보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 부터 영주는 신문배달을 하여 한 달 동안 필요한 돈을 모았습니다. 기다리던 방학이 되어 내일이면 동네 친구들과 풀장에 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버지께서 필요한 일이 생겨 영주가 모은 돈을 모두 달라고 하셨습니다. 영주는 어떻게 해야 좋을 지 몰랐습니다.

물음 1) '풀장 이야기'를 읽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을 아래에 적어주십시오.

물음 2) 이야기를 읽고 느낀점이 무엇인지 다음 각 4개씩의 생각 중에서 내 마음에 꼭 드는 것 1개 또는 2개를 골라 ()속에 ○표 하시오.

(가)

- 1) 영주는 아버지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
- 2) 아버지는 다음에 영주에게 그 돈을 갚아 줄 것이다. ()
- 3) 영주는 아버지를 믿고 열심히 일했다. 아버지께서 이것을 아신다면 그런 부탁을 안 하실 것이다. ()
- 4) 영주도 이제 온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의 생각을 알아주고 같이 의논하고 도와 드릴 수도 있다. ()

(나)

- 1) 영주는 아버지께 거절할 수 없다. 모든 것은 아버지께 달려있다. ()
- 2) 영주가 일하여 벌은 돈이니 아버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
- 3) 이 일 때문에 아버지와 영주의 좋은 사이를 나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
- 4)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잘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모두 잘 따라야 한다. ()

(다)

- 1)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영주에게 화를 내실 것이 틀림없다. ()

- 2)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영주도 다음에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
- 3) 아버지는 자기 아들인 영주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
- 4) 아버지는 약속을 지켜 자기가 훌륭한 사람인 것을 보여 주어 영주가 본 받게 해야 한다. ()

(라)

- 1)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 한것과 같다. ()
- 2) 어른인 아버지가 약속을 깬 것이 더 나쁘다. ()
- 3) 만약 영주가 친구들과 함께 가지 못하고 집에 남게 된다면 이것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도 아플 것이다. ()
- 4) 약속을 마음대로 어기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온 가족이 힘을 모아 잘 이겨 나갈 수 없다. ()

(마)

- 1)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고집을 부리다가는 매를 맞을 수도 있다. ()
- 2) 아버지께서 여태까지 영주를 고생하시며 길러 주신것을 알아야 한다. ()
- 3) 아버지께서 영주의 돈을 도로 받아 갔다는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면 아버지는 부끄러울 것이다. ()
- 4) 아버지는 영주가 아무리 아들이지만 한사람의 인간으로 공평하게 대해줌으로써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한다. ()

(바)

- 1) 아버지는 어른이시며 영주보다 더 높으시니까 영주는 이유를 대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 ()
- 2) 아버지도 영주에게 돈을 거저 준 적이 많았다. 영주도 한 번쯤 아버지의 부탁을 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
- 3) 아버지도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이다. 영주가 거절하더라 해도 화를 내시지는 않을 것이다. ()
- 4) 아버지는 가정을 지켜 나가는 분이다. 그 돈이 식구 전체를 위해 쓰일 것이라면 영주는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 ()

(나) 김씨 이야기

가난한 김씨의 아내가 집에서 아기를 낳다가 잘못하여 곧 죽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겨우 찾아 왔으나 간호원이 수술하는데 필요한 돈을 먼저 가져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씨는 다시 의사를 찾아 부탁하였으나 의사도 간호원과 마찬가지로 입원비를 반이라고 가져와야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화가 난 김씨는 옆에 있던 칼을 들고 의사와 간호원들에게 겁을 주며 억지로 수술을 하게 하였습니다. 수술은 잘 마쳤지만 김씨는 재판을 받게 되

었습니다.

물음 1) '김씨 이야기'를 읽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을 아래에 적어 주십시오.

물음 2) 이 이야기를 읽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 다음 각 4개씩의 생각중에서 내 마음에 꼭 드는 것 1개 또는 2개를 골라 ()속에 ○표 하시오.

(가)

- 1) 칼을 들고 사람에게 겁을 준다는 것은 무조건 나쁜 일이다. ()
- 2) 김씨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면 다시 또 이런 일을 할지 모른다. ()
- 3) 김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도와 달라고 해야 한다. ()
- 4) 이런 일이 김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럴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사회는 엉망이 될 것이다. ()

(나)

- 1) 김씨는 강도질을 하다 잡혔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 ()
- 2) 만약에 의사가 판사에게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면 김씨는 풀려 나올 수 있다. ()
- 3) 김씨는 자기를 위해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식구들을 위해서 한 것을 알아야 한다. ()
- 4) 법은 나쁜 사람을 벌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회에 필요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있는 것이다.

(다)

- 1) 판사는 재판하는데 제일 높은 사람이며 아무도 판사에게 명령을 내릴 수 없다. ()
- 2) 김씨가 그런 행동을 했다 해도 감옥에 까지 보낼 정도는 아니다. ()
- 3) 김씨의 그때 마음은 너무나 안타까웠을 것이며 아마도 제 정신이 아니었을 것이다. ()
- 4) 법을 무시하고 판사 마음대로 용서해 준다면 다음에도 또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어 사회가 불안해질 것이다. ()

(라)

- 1) 판사까지 김씨에게 벌을 준다면 김씨는 어떤 짓을 할 지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 ()
- 2) 김씨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아내는 틀림없이 죽고 말았을 것이다. ()
- 3) 김씨가 남편된 도리로서 아내를 살리기 위한 것에 대해 나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

- 4) 이런 김씨를 감옥에 넣는다면 김씨는 사회나 법을 미워하게 될 것이고 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을 것이다. ()

(마)

- 1) 판사는 나쁜 사람에게 벌을 주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다. ()
- 2) 병원에서 그런 식으로 불친절하게 했으니 김씨가 그럴만도 하다. ()
- 3) 김씨가 조금만 더 참고 의사와 간호원에게 좀 더 부탁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
- 4) 사람마다 양심대로 살아가겠지만 그것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는 모든 사람이 똑 같이 지켜야 할 법이 필요하다. ()

(바)

- 1) 김씨가 칼을 가지고 의사든 간호원이든 사람을 찌를려고 한 것은 나쁜 일이다. ()
- 2) 판사는 법을 어겨 가면서 까지 김씨를 구해 주려고 할 필요는 없다. ()
- 3) 김씨는 지금 자기의 한 일에 대해 나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
- 4)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해도 사람의 모든 일을 언제나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사는 바로 이점을 잘 생각해야 한다. ()

부록 2. 나의 생각 (국민학교 4학년이상 성인용)

()학교 ()학년 ()반 (남·여) 이름()

각 이야기를 읽고 중요한 정도에 따라 0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준 다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4개를 골라 그 번호를 ()속에 중요한 차례대로 적으시오.

A. 톰씨의 아내

미국 어느 마을에 한 여인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의사들이 그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 특효약이 있었는데 그 약은 같은 마을의 한 약사가 최근에 만든 것이다. 그런데 그 약사는 엄청난 약값을 요구했다. 재료값의 10배가 넘는 8천달러나 요구했던 것이다. 가난한 그 여인의 남편 '툼'씨는 돈을 구하려 돌아다녀 보았지만 겨우 그 약값의 반밖에 구하질 못했다. 하는 수 없이 그 약사를 찾아가 자기 아내가 지금 죽어가니 그 약을 좀 싸게 팔거나 외상으로라도 해달라고 사정을 했으나 거절 당하고 말았다. 절망에 빠진 남편 '툼'씨는 그 약방을 부수고 들어가 약을 훔치고 말았다.

번호	의 건	점수
14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 사회질서를 위한 나라의 '법'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점
13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누구라도 자기아내를 위해 그렇게 할만하다.	점
12	툼씨가 그런 행동을 했다해도 감옥에까지 보낼 정도는 아니다.	점
22	툼씨가 약을 훔치지 않으면 아내는 죽을 것이다.	점
23	툼씨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 점을 참작해야 한다.	점
24	'약사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기가 발명한 약에 대한 정당한 약값을 요구할 권리가 그 약사에게 있다고 본다.	점
16	생명의 가치가 개인적으로나 죽음 그 이상을 초월하지는 않는다.	점
15	툼씨가 약방을 부수고 들어간 것처럼 남에게 끼치는 그 행위가 과연 어떠한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점
32	툼씨가 다음에 돈을 벌어 약값을 갚아주면 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점
25	이런 경우에는 법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 같다.	점
33	약사가 약값을 터무니 없이 요구하여 톰씨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함으로써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	점

35	툽씨가 그와같이 약을 훔쳐감으로써 전체사회에 결국 어떤 이익을 주게 될지 생각해야 한다.	점
----	---	---

☆ 가장 중요한 4가지는? ()-()-()-()

B. 축구부

시골 어느학교의 '축구부'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에게 '감독'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너무 고된 훈련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 학생들의 생각에 여러 선생님들도 찬성을 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은 그 '감독'을 그냥 두기로 했다. 그러자 학생들은 그들의 주장이 통과될 때까지 학교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

번호	의 건	점수
33	축구부 학생들은 문제를 차분히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단순히 반항을 위한 반항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점
34	아무리 그래도 학생들이 학교를 마음대로 결석할 권리는 없다고 본다.	점
22	이 일로 인해 벌을 받거나 심하면 퇴학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했다고 본다.	점
45	그런일이 결과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점
35	교장선생님은 여러교사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권한이 없다.	점
23	그와 같은 소란은 결국 학교의 명예를 더럽히게 될 것이다.	점
25	축구부 학생들의 그런 행동이 과연 정의의 원리에 일치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점
24	그런 행동을 그냥두면 다른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점
13	교장 선생님이 조금만 더 학생들을 이해하고 협조했다면 이와같은 학생들의 오해를 사지는 않았을 것이다.	점
12	학생들이 마음대로 선생님을 바꿀 수 없듯이 감독을 바꿔달라는 등의 요구는 할 수 없다고 본다.	점
15	축구부 학생들의 이런 행동이 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는 어떤 생각이나 원리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문제는 달라질 것이다.	점
14	학생들의 입장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학교의 총책임자로서의 교장선생님의 결정을 어디까지나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점

☆ 가장 중요한 4가지는? ()-()-()-()

C. 탈옥수 김씨

김씨라는 한 남자가 10년의 징역을 선고받아 1년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2년째 되던 어느날 감옥을 탈출하여 다른 마을로 숨어가서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살게 되었다. 8년동안 그는 열심히 일하여 자신의 사업을 일으킬 만큼 돈을 모았다. 그는 손님들에게 친절했으며 자기 회사의 종업원들에게 최고의 봉급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많은 이익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했다. 그러던 어느날 고향의 마을에서 살던 박씨라는 사람이 마을에 왔다가 김씨가 탈옥수이며 경찰이 찾고 있는 자임을 알았다.

번호	의 건	점수
13	그만한 세월이면 김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본다.	점
14	만약 한 사람의 범죄를 모른 척 덮어두면 이것으로 인해 더욱 다른 범죄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도 모른다.	점
12	김씨가 고발당하면 탈옥한 죄로 더 많은 징역을 살게 될 것이다.	점
24	김씨는 진정으로 사회에 진 빚을 다 갚았는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	점
15	김씨가 정당하게 요구할 것이 있다면 사회는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점
22	김씨는 자수를 해야 한다. 모든 잘못을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점
23	김씨의 사정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치고 김씨를 무정하게 감옥에 보내려 경찰에 고발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점
34	만약 김씨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그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준다면 나머지 죄수들도 사회에 나가 착한 일을 할테니 석방시켜 달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렇게되면 법의 질서가 흔들리게 될것이 분명하다.	점
33	박씨가 김씨의 진정한 고향 친구라면 현실적으로 볼 때 고발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으로 본다.	점
44	사정이야 어쨌든 일단 고발하는 것이 참된 시민의 의무라고 본다.	점
25	이런 일을 판단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인간의 의지나 공공의 이익이 가장 잘 대우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	점
35	감옥에 보내는 것이 김씨에게 어떤 이익을 주게되는 것인지 또는 그를 진정 보호해 주는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점

☆ 가장 중요한 4가지는? ()-()-()-()

D. 의사의 고민

어느 병원의 여자환자가 불치의 병으로 오랜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동안 병이 너무나 악화되어 의사의 말로는 6개월을 넘길 수 없다고 한다. 그녀는 계속되는

고통으로 견딜 수 없어 의사에게 산소호흡기를 제거해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다. 그녀 자신도 이제 어차피 죽을 목숨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번호	의 견	점수
23	이런 경우에는 무엇보다 먼저 그 가족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점
22	생명은 그 환자의 것이다. 의사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리 그 환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점
32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위협하게 자살을 도울 필요는 없다.	점
12	이런 경우 의사는 환자가 저절로 죽은 것처럼 또는 우연한 사고로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다.	점
45	국가가 그런 사람의 생명을 억지로 연장시킬 권리는 없다.	점
26	사회는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보다 죽음의 가치를 우선할 수는 없다.	점
13	이런 경우 그녀의 고통을 동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동료 의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본다.	점
35	그녀의 자살을 돕는 것이 진정 책임있는 행위는 아니다.	점
24	인간의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는 인간 자신이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경우 모든 것을 하늘의 뜻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점
25	의사가 그런 일을 결정함에 있어 어떤 양심의 가치를 따르는가가 중요하다.	점
14	아무리 자기 생명이라도 귀중한 인간의 생명을 마음대로 끊도록 사회가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점
15	사회가 자살이나 안락사를 허용하면서도 살고자 원하는 다른 생명들을 여전히 보호해 줄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	점

☆ 가장 중요한 4가지는? ()-()-()-()

E. 나까무라씨

해방을 맞이한 이듬해 원동기 수리공장의 주인인 '박'씨는 그를 도와줄 기술자가 한사람 필요했으나 그 당시 좋은 기술자를 찾기란 참으로 어려웠다. 마침 훌륭한 기술자가 한사람 있었으나 그는 한국여인과 결혼할 '나까무라'씨로 그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어렵게 살고 있던 일본인이었다. '박'씨는 그를 채용해야 할지 망설였다. 만약 그를 채용할 경우 손님들이 일본인을 싫어하여 다른 공장으로 갈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번호	의 견	점수
24	공장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자기사업에 대한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본다.	점
14	법에 위배되지 않는한 '나까무라'씨를 채용하는 것은 박씨 마음에 달려 있다.	점
13	이런 경우 일본의 압제를 경험한지 얼마되지 않은 당시 상황으로 보아 손님이나 마을 사람들의 생각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점
12	좋은 기술자를 채용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의 사업이 잘 된다면 문제는 없다고 본다.	점
45	사회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개인간의 차별은 필요없다고 본다.	점
22	일본인을 채용하는 것은 당시로선 다소 위험한 일이다.	점
35	그 손님들이 일본인을 싫어한다고 모든 마을사람들이 다같이 생각을 갖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점
15	'나까무라'씨와 같이 능력있는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것은 결국 사회의 큰 손실이라고 본다.	점
25	'나까무라'씨의 채용여부에 대한 결정이 '박'씨 자신의 어떤 도덕적 양심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점
33	'박'씨가 '나까무라'씨의 기술을 인정하고 더우기 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잘 알고 있다면 그에게 취직자리를 거절할 만큼 무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점
34	바로 이럴때 우리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점
23	이와같이 딱한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보답받을까 하는 생각없이 도와주어야 한다.	점

☆ 가장 중요한 4가지는? ()-()-()-()

F. 영수의 신문

영수는 학교신문을 만들어 자기의 생각이나 학생들의 희망을 발표하고 싶었다. 교장 선생님은 발행할 때마다 먼저 그 내용을 보여주면 허락하겠다고 약속했다. 영수도 약속을 하고 그대로 실천하여 신문을 두번 발행했다. 그런데 두번째 신문에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실은 것이 문제가 되어 몇몇 학부모들이 교장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그 신문을 중지시키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자 교장 선생님은 영수에게 무조건 그 신문을 그만 두도록 명령했다.

번호	의견	접수
24	이런 경우 교장선생님은 학생과 학부모 어느쪽에 더 책임이 있는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	점
34	이 문제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먼저 교장선생님이 신문을 계속 발간하도록 약속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마다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약속을 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점
22	신문을 이와같이 무조건 중지시키면 학생들이 영수의 편을 들어 교장선생님께 항의를 할지도 모른다.	점
14	학교의 질서가 위협받게 될때 교장선생님은 어떤 명령이나 경고를 학생들에게 내릴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본다.	점
32	학생의 모범이 돼야할 교장선생님이 약속을 깬것이 더 나쁘다.	점
35	신문을 중단시키면 그 결과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막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도 모른다.	점
23	그렇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기면 교장선생님에 대한 신용이 떨어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다음에 어떤 일을 할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점
13	교장선생님이나 학부형들이 무조건 신문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기전에 영수가 과연 평소에 어떠한 학생인지를 좀더 알아보아야 했었다.	점
25	신문의 중지로 인해 학생들의 비판사고와 판단력을 기르는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야 한다.	점
15	영수가 자신의 의견을 신문에 싣게 됨으로 해서 혹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점
44	학교를 위해 무엇이 최선의 방법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학교장으로서 몇몇 학부형의 압력을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점
33	영수가 학생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신문을 이용했다면 당연히 반성해야 할 일이다.	점

☆ 가장 중요한 4가지는? ()-()-()-()

物的流通에 있어서의 商·物分離原則에 관한 考察

朴 昌 式*

[目 次]

- I. 序 論
- II. 物的流通과 商的流通의 關係
 - 1. 生産者의 物流
 - 2. 販賣會社의 物流
 - 3. 都賣商의 物流
 - 4. 百貨店의 物流
 - 5. 체인·스토어의 物流
- III. 商·物分離의 原則
- IV. 結 論

I. 序 論

現代의 流通에 있어서는, 商的支配의 時代에서 物的流通 支配의 時代로 이행되고 있다.¹⁾ 物的流通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높아진 것은 經濟成長의 급격히 진전된 1970년대 후반 이후 부터 인데 이전까지는 物資의 輸送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큰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經濟成長이 高度化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産業構造의 급격한 變化에 따라서 流通過程 자체가 지적되고 그 개선의 필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졌다. 또 급격한 經濟의 成長과 産業構造의 變化는 國內 뿐만 아니라 對外的으로도 대량의 物資 輸送을

* 전임강사, 경영학 전공

1) 林周二, 中西陸, 現代의 物的流通